

친환경 닭고기 생산 우수사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그리고 우리는 양계에 미쳐야 한다



이 준 동

충북도지회장/충북바이오협동영농조합장

작금의 현실 돌파구가 필요하다.

작금의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한·미 FTA, 한·EU FTA, 앞으로 진행될 여러 나라와의 자유 무역협정, 천정부지로 치솟는 곡물가와 원유가 반복되는 AI의 불안, 소비부진과 과잉생산, 물가 상승 모두가 원가 상승요인이 아니면 가격 하락요인이다.

이 위기를 우린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수년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도 둘째도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닭고기를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투명한 생산을 하고자 고민 끝에 친환경으로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2004년부터 영농법인을 결성하고 농가들을 한 사람씩 설득하여 지금은 연간 약 400만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미쳐야 최고가 된다

급변하는 시대에 사육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어느 직업이든 그 직업에 충실하고 미쳐야 최고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필자는 닭을 사육하는데 미치고자 했다. 앞으로도 최고의 닭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 축·수산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약 150만톤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1톤 트럭 150만대 분량의 거대한 양이다. 우린 닭에 대한 사용량도 무시 할 수 없다. 많은 약제에 내성률이 높은 농장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으며 농장 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한 약제사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믿으며 분뇨에 잔류하는 약제성분은 분뇨를 자원화 하는데 방해가 되고 환경오염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소비자의 신뢰, 농장오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운 양계산물을 생산코자 노력해야 되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사육을 해야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친환경 사육, 농가의지가 첫 발걸음

친환경 사육은 사육기술이 첫 번째가 아니고 농가의 의지가 첫 번째이다. 친환경으로 사육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은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몇 십년 사육한 방법이 기본 사양기술이 아니라면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초기 입주시 어려운 문제인 습도 조절 방법, 사육 기간중 호흡기 치료, 호흡기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환기구를 꼭꼭 닫아 사람이 축사내에서 호흡을 할 수 없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옳지 않는 사육방법, 축사 내에서 사람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어야 닭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이 기본이다.

또 하나 즉흥적으로 일하지 말고 고민하여 일하고 사양관리를 해야 한다.

사료와 음수에 항생제나 소독제를 투여하고 다시 생균제를 투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균제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 항생제가 어떤 특정 질병이나 특정 균에만 작용하지 않고 불특정 모든 균에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균제의 활동도 억제 받으며 시간차가 있게 투여해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친환경으로 한발 더 다가서자

우린 관행으로 막연히 불안하게 사용하는 항생제의 양 또한 엄청나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30~40%는 막연히 불안해서 사용하는 항생제인데 질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늘 그 일령만 되면 불안해서 투여하고 주기적으로 항생제를 크리닝 하라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따라하게 된다.

필자도 사육하면서 처음 그렇게 배웠고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육했고 항생제를 쓰면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질병에도 우린 항생제를 사용 했다.

이제 그 그늘에서 탈피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린 친환경으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 친환경 얘기만 하면 부정부터 하고 친환경만 논하느냐고 질책하는 분들도 많았다. 하지만 필자가 하지 않아도 노도와 같은 거대한 물결을 우린 막을 수 없고 누가 나서서라도 진척시켜 주어야 할 과제이며 그 자리에 필자가 선택됐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제 이 경험을 여러 동지들과 공유하고 더 고민하여 많은 양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모두가 인정받고 운택한 삶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동지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양계산물을 생산코자 한다면 분명 우린 준비된 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양계**



미국 아틀란타 양계박람회 참관단 모집

좋은 경험과 추억을 준비하세요!

오는 2008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아틀란타 양계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틀란타양계박람회는 양계 단일박람회로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전통이 있으며 글로벌화시대에 양계업이 나아가할 방향과 견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 ♣ 전시회명 : 2008 아틀란타양계박람회(Atlanta International Poultry Expo 2008)
- ♣ 전시기간 : 2008년 1월 23일(수)-25일(금)
- ♣ 전시장소 :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조지아 월드콘그레스 센터
- ♣ 전시분야 : 양계 육종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분야
- ♣ 참가일정 : 08.1.22(화)~29(월) 8일간
- ♣ 방문지역 : 아틀란타, 뉴욕, 보스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양계협회 홍보팀(02 588-7651)이나 (주)글로벌여행사(02-733-4114)에 문의하시면 일정, 가격 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양계협회 아틀란타 양계박람회 시찰단과 추억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